

미학적성서해석(Aesthetic Biblical Interpretation)

김진명(장신대)

1. 미학적성서해석이란?

1) 기본적 이해

신학과 예술의 통섭적이며¹, 간학문적인 대화를 위한 주석적 연구로서 ‘미학적성서해석’은 기독교 성서신학과 기독교 미술의 공통 분모로서 성경 본문에 관한 해석학적인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성화와 해당 성경 본문에 대한 ‘미학’적이며, ‘성경’적 접근을 시도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² 여기서 말하는 ‘미학’(aesthetica)이란 바움가르텐(Alexander

1 ‘통섭’이란 William Whewell이 만든 consilience를 번역한 용어이다. 이 용어는 여러 요소를 ‘섞는다’는 의미를 갖는 말이다. 최재천, 「통섭의 식탁」(서울: 명진출판, 2012), 10-12.

2 미학적성서해석에 관하여는 다음의 논문들을 참고할 수 있다: 김진명, “렘브란트와 헤촌 김학수의 작품 해석을 통한 미술과 성서신학의 통섭적 대화를 위한 연구: 출애굽기의 모세 관련 그림과 성경 본문의 해석 문제를 중심으로(14:21-22; 32:19)”, 「장신논단」 47(1), 2015.3, 13-40(16). 김진명, “마태복음 4장 1-11절과 신명기 6장 13절 및 8장 3절의 미학적 성서해석: 운보 김기창의 사탄에게 시험받다와 헤촌 김학수의 광야의 시험

Gottlieb Baumgarten, 1714~1762)의 「시학」 §116에 처음 등장했던 용어이며³, 이 낱말은 본래 그리스 철학의 맥락에서는 이성을 뜻하는 ‘로고스’(λόγος)와 대조되는 ‘감성’을 뜻하는 헬라어 ‘아이스테시스’(αἰσθησις)의 파생어였다.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성경 저자의 ‘정서’를 헤아리는 ‘감성적 인식’을 통해 ‘아름다움’(미)을 체험하고, 종교적 진리를 통찰하는 신앙적이며 영적 의미를 갖는 개념이었다고 볼 수 있다.⁴

또한,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 1892-1940)은 ‘언어의 본질’에 관한 논의에서 창세기 1장을 토대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자연과 사물은 그 본질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잔재인 무언의 언어로 채워져 있으며, 이름 없는 사물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은, 인간이 대상을 인식하고 이름을 부여했던 일이었다고 이해했다. 그러므로 사물의 언어는 음성으로 발성되지 않은 상위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조형예술의 언어’와 ‘회화의 언어’와 ‘시문학의 언어’로서 구분할 수 있지만, 그 바탕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설명했다.⁵

작품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문학과예술」 제4집 vol.45 (2022.09), 93-125. 김진명, “운보 김기창의 〈물 위를 건다〉와 성경본문의 미학적 성서해석”, 「한국문학과 예술」 vol. 39, (2021, 9), 269-294. 김진명, “〈그리스도의 세례〉에 관한 미학적 성경주석: 운보 김기창의 〈요한에게 세례받음〉과 배경 본문(마 3:13-17, 례 8:6, 12)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통권 80집, vol. 27-2 (2021, 6), 169-196. 김진명, “구약과 신약의 만남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마 2:1-13)에 관한 연구: 이연호의 작품 〈베들레헬 위 헤롯 군인들의 군화〉(1962)와 신약(마 2장)과 구약 본문들(미 5:2, 삼하 5:2, 호 11:1, 렘 31:15)에 관한 미학적성서해석”, 「선교와 신학」 63 (2024), 141-169. 김진명, “운보 김기창의 〈최후의 만찬〉과 누가복음 22장 14-23절의 미학적성서해석: 구약의 유월절 전승과 신약의 성례전 전승과 운보의 성화에 관한 ‘미학적-성서신학적 접근’”, 「한국문학과 예술」 52 (2024.12), 401-426.

3 「시론」은 바움가르텐(Alexander Gottlieb Baumgarten, 1714~1762)의 교수자격청구논문인 「시의 요건에 관한 철학적 성찰」(Meditationes philosophicae de nonnullis ad poema pertinentibus, 1735)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안윤기, “근대 미학과 경건주의: 바움가르텐의 연구”, 「동서철학연구」 제101호, (2021. 9), 339-364.

4 안윤기, 같은 책, 356-357.

5 Walter Benjamin, “Über Sprache überhaupt und über die Sprache des Menschen”(1916), *Gesammelte Schriften*, Frankfurt a. M., 1972-89, Bd. II/1 pp. 137-40, 최성만 옮김, 「언어

이러한 설명을 근거로 이해할 수 있는 ‘미학’이란 비음성적 언어로 표현된 미술 작품의 아름다움의 주제와 내용과 언어를 번역하고, 전달하는 학문으로 볼 수 있으며⁶, 여기서 강조했던 ‘언어적 본질’의 이해는 앞으로 전개해가게 될 ‘미학적성서해석’의 설명과 논의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모든 사물과 환경과 사건의 비음성적 언어와 다양한 음성적 언어를 문자로 기록한 성경과 그러한 언어와 문자를 그림으로 표현한 미술 작품을 해석하는 작업은 ‘언어적 본질’이라는 접점을 가질 수 있으며, 여기서 미술과 성서신학의 통섭적 대화를 위한 토대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여기서 말하는 ‘성서해석’ 또는 ‘성경주석’은 우선 성경의 최종 본문을 존중하고, 해석학적 논의를 진행하는 ‘공시적(synchronic) 연구’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성격의 다양한 주석방법론 가운데, 성경 본문의 언어와 기록과 수사학적인 표현과 구조와 장치와 의도와 같은 문학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수사 비평(Rethorical criticism)과 본문상호적해석(intertextuality)등의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최종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미학적 요소로서 ‘아름다움’의 주제와 특징을 찾아서 해석하는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성경본문의 내용을 시각화 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기독교 미술⁷ 작품인 ‘성화’⁸도 예술가의 본문 해석의 결과라는 관점에서, 그림 작품에 반영된 성경 본문을 역으로 추적해 보고, 그림의 미적인 요소들과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 / 번역자의 과제 외], 발터 벤야민 선집 6 (서울: 도서출판 길, 2016), 69-118.

6 진중권, 「진중권의 현대미학 강의」 (파주: 아트북스, 2004), 17-19.

7 기독교미술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카타콤(Catacomb) 벽화로 표현된 경전적이며, 성례 전적인 그림들에서 출발했으며, 성서적인 소재를 사용하거나, 교리적인 종교화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으며, 기독교 신앙이 반영된 미술 작품들이라는 종교적 특징을 갖는다. 이연호, 「기독교와 미술」, 「기독교사상」 통권336호(1986. 12), 88-95.

8 기독교 미술 작품으로서 기독교 신앙과 성경의 주제 및 내용과 관련된 종교적 그림을 일반적으로 ‘성화’라고 부른다.

내용을 함께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그 의미를 찾는 작업은 미술의 ‘도상학’(iconography)⁹을 활용한 연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성경 본문을 공통 분모로 하는 ‘성화’에 대한 ‘도상학적 접근’과 성화와 연결된 성경 본문에 대한 주석적 연구로서 ‘성서적 접근’을 융합한 통섭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는 ‘미학적성서해석’(Aesthetic-Biblical Interpretation) 또는 ‘미학적-성서적 접근’(Aesthetic-Biblical Approach)은 하나의 주석적 연구 방법으로서,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소개할 수 있다.

2) 미학적성서해석의 배경적 이해

서구 문명의 비약적 발전이 이루어진 계기는 16세기 알프스 산맥 이남의 르네상스 운동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근대 서양 문명의 한 축에 해당하였다. 또 다른 한 축을 형성한 것은 알프스 산맥 이북의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운동이었다. 알프스 남쪽의 이탈리아에서는 ‘근본으로 돌아가자!’(ad fontes)라는 그 당시의 시대정신이 반영된 모토가 학자들의 헬라 고전 연구에 적용되었으며, 그 여파로 문예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인문학적 제반 분야들의 발전과 중세시대의 획일화된 종교적 사고와 사회 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알프스 이남의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근본으로!’라는 동일한 모토가 알프스 이북에서는 본래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었던 성경원문 연구에 적용되었으

9 도상학(iconography)은 조형미술의 주제를 연구하는 학문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으며, ‘도상’(icon)의 내용과 주제와 구성 요소와 세부사항들을 서술하고 해석하는 작업과 연구 분야라고 설명할 수 있다. 월간미술 편, 「세계미술용어사전」(서울: 중앙일보사, 1989), 85 참조.

며, 쾰빙글리(Ulrich Zwingli, 1484~1531)와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와 칼뱅(Jean Calvin, 1509~1564) 등의 종교개혁 지도자들에 의해 중세 로마 가톨릭의 라틴어 성경 대신에 모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대중들에게 보급되는 일로 이어졌다. 중세 교회의 전통과 교리 대신 성경본문의 권위를 강조하는 개신교가 알프스 이북의 유럽 지역에 확산되면서 새로운 ‘종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서양 문명은 기독교의 새로운 변모와 함께 근세와 현대로 이어지는 과정을 밟아 오게 되었다. 여기서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문화의 요소들 가운데 미술 분야이다.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학적 발전과 사상적 자유를 추구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예술 작품들의 변화였다. 이 시대로 접어들면서 인간에 관한 관심과 주제들이 강조되었고, 특별히 회화에서는 중세 종교의 제약에서 벗어난 다양한 대상들이 그림의 주제가 되었으며, 인간 육체에 대한 생생한 묘사들이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나타난 개신교의 새로운 출현도 회화의 변화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으며, 그림은 제단화 중심의 중세 교회 미술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성경의 주제들을 화가들이 자유롭게 표현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서구 역사의 변혁기에 문화와 종교의 현상들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개되었으며, 그러한 시대적 양상은 미술 분야에서도 그래도 반영되어 나타났다. 따라서 한 시대의 미술 작품을 분석하는 작업은 그 당대의 문화와 종교적 배경의 이해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기에 이미 그러한 연구의 시도 자체가 통섭적 특징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서양 미술사의 특징 가운데 많은 미술 작품이 교회와 성경 내용의 연관성 속에서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기독교적인 성경 본문 해석의 역사와 무관하

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미술과 성서학의 접점의 주제와 관련하여, 김학철은 르네상스 시대의 자코포 바사노(Jacopo Bassano, 1517 혹은 1518-1592)와 그의 작품들을 연구한 베르디니(Paulo Berdini)에 의해서 “시각적 주석”(visual exegesis)이란 용어가 미술사 비평에 도입되었고, 성서화는 본문의 확장된 형태로써, 그림은 본문이 아니라 성서화가의 독서를 시각화한 것이며, 베르디니가 시각적 주석으로서 성서화와 글로 쓴 주석의 형식과 목적이 유사하다고 보았던 점에 동의하였다. 또한 그는 렘브란트를 성서 독자와 시각적 주석가와 예술가로서 성서에 대한 기존의 해석 전통을 해체하고, 재구성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통찰을 형상화 했다고 설명함으로써 렘브란트의 성서화에 나타난 미술과 성경 주석의 문제를 다루었다.¹⁰

또한 셰릴 엑섬(J. Cheryl Exum)도 그림이 성경 본문의 부분적인 내용 모두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한다고 보았으며, 예술 작품을 성서주석의 한 형태로서 보면서, 이미지의 서사성(narrativity of images)이 성경의 서사에 어떤 빛을 비출 수 있는지를 묻는, ‘시각적 비평’(Visual Criticism)은 성경의 이야기에 반영된 여러 요소를 보다 더 예리하게 관찰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¹¹ 하지만 이렇게 미술과 본문 해석(주석)의 문제를 함께 강조했던 설명과 주장들에서도 성경 본문 주석의 문제보다도 그림의 주석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었던 특징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과 맥락 속에서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미학적성서해석’은 성경 본문에 강조점과 무게 중심을 두는, 구체적인 본

10 김학철, “성서화 비평과 성서화가(聖書畫家): 성서화가 렘브란트와 그의 성서화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3집 (2011. 1), 259-286(270). cf. Paulo Berdini, *The Religious Art of Jacopo Bassano: Paintings as Visual Exegesis* (Cambridge: Cambridge, 1997).

11 J. Cheryl Exum, *Art as Biblical Commentary* (London, New York: T & T Clark, 2019).

문 해석을 위한 하나의 주석적 연구 방법으로서 제안할 수 있다.

2. 미학적성서해석의 연구 방법

1) 성화 작품의 도상학적 해석

‘미학적성서해석’에서 활용하는 미술 분야의 ‘도상학’은 그림 작품의 형식보다 그 그림의 주제가 되는 내용을 연구하는 분야를 말하지만¹², 기독교적인 주제를 시각화한 이미지를 해석하는 방법 점에서 엄밀하게는 ‘기독교 도상학’이라고 할 수 있으며¹³, 기독교적이며 성경과 연관된 ‘성화’ 작품을 해석하기 위한 본 연구의 중요한 내용과 과정을 지칭하는 방법론적인 용어로서 ‘도상학적 접근’(iconographic approach)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여기에는 특정한 성경 본문과 관련된 성화 작품의 도상학적 연구를 위해서 우선 화가의 간략한 생애와 작품들의 전체적인 특징과 미술사적인 사조와 시대적 배경 등을 전체적이며,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특정한 성화 해석을 위한 배경적 이해를 설명할 수 있다. 미학적성서해석은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한 현실성과 집중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의 실제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7세기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Rembrandt Harmenszoon van Rijn, 1606~1669)를 선택할 경우에는 그의 작품 세계 분석을 통하여, 바로 직전의 16세기 종교개혁과 르네상스 운동의 영향 속에서 나타난 역사와 종교와 문화적 현상들의 특징을 고찰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12 Andre Grabar, *Christian Iconography: A Study of Its Origins*, 박성은 옮김, 「기독교도상학의 이해」(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7),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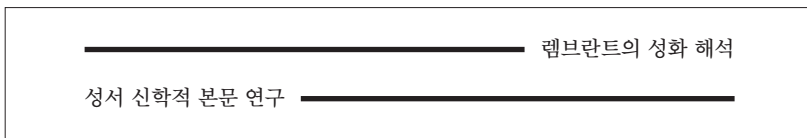
13 Andre Grabar, 같은 책, 10.

당시에 스위스와 네덜란드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된 개신교 개혁주의의 운동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으며, 렘브란트의 작품 세계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¹⁴ 종교화로서 렘브란트의 그림이 그 당시 시대상을 어떻게 반영하였으며, 렘브란트가 어떻게 특정한 성경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한 후에, 그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 했는가의 문제는 성경 본문 해석의 성서 신학적이며, 해석학적 연구 과제로 직결될 수 있다.

2) 성경 본문의 주석적 연구

렘브란트와 그의 작품들에 관한 연구는 미술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고 충분하게 이루어져 왔다. 렘브란트의 그림과 관련된 성경 본문들도 기독교 2천여 년 역사 가운데서 다양한 주석서들을 통한 해석들이 풍부하게 지속되었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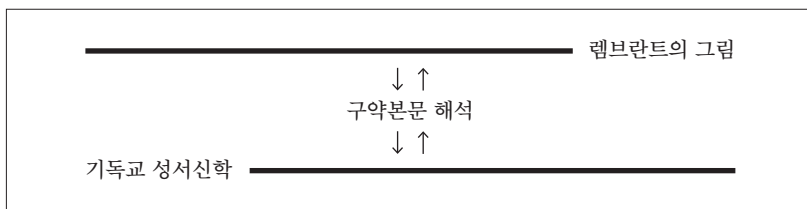
그러나 미술과 성서신학 두 분야의 연구는 지금까지 마치 평행선과 같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두 분야 사이에서 간학문적인 연구 작업은 긴밀하고,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학적성서해석의 실제 사례연구를 위한 작업은, 위에서도 언급했던, 렘브란트의 성화와 그 성화가 관련된 본문 연구의 경우를 통해서 제

14 김진명, “기독교 미술에 나타난 종교개혁과 성경해석의 영향에 관한 연구”, 『선교와 신학』 제43집 (2017. 10), 75-107.

시해 볼 수 있다. 화가로서 동시에 구약 본문의 주석가로서 램브란트는 자신의 앞에 놓여 있는 성경 본문을 어떻게 읽고 해석했는가를 규명하는 작업은 구약 본문에 대한 성서신학적 논의와 주석적 연구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램브란트에게 있어서 그림과 신학은 겉으로는 평행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함께 공유했던 성경 본문이라는 드러나지 않은 접촉점을 통해 서로 연결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가시화(可視化) 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탐색해 보고, 드러내는 작업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3) 미학적성서해석: 미학적-성서적 접근

우선, 미학적-성서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연구는 미술 작품의 도상학적 접근을 통한 '성화' 해석과 해당 성경 본문의 수사 비평적 접근을 통한 '본문' 해석을 통해서, 미학적 관점의 심미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아름다움의 요소가 무엇인가를 찾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학적이며 예술적인 특징의 해석을 진행한다는 점에서는 '독자'와 '독자의 해석'을 강조하고, '본문'의 문학적 특징과 심미적 경험을 강조하는 '수용미학'(Rezeptionsästhetic)¹⁵과 '독자-반응비평'(Reader-Response Criticism)과 '본문상호적해석'(intertextuality)과 같이 유사한 강조점들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공시적 주석 방법론들과 공유할 수 있는 영

15 차봉희 엮음, 「수용미학」, 문제와 시각 14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8), 26-47.

역을 포함한다.

그러나 성경 본문 주석의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며, 본문의 내용과 역사를 최종 본문 형태로 존중하면서, 본문 저자의 의도와 본문의 신학적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찾는데 강조점을 두고, ‘본문’과 ‘독자’의 구분을 전제하면서, 예술 작품으로서 성화와 성화에 반영된 화가의 본문 해석 결과를 비교 검토하고, 성경 본문 주석을 위한 해석학적 대화를 전개해 가는 연구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

성경 본문과 성화에 관한 도상학적이며 주석적인 연구 방법으로서 ‘미학적성서해석’ 또는 ‘미학적성경주석’의 절차와 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미술 작품에 대한 도상학적 연구이다. 둘째는 그 작품에 나타나거나 반영된 예술가(화가)의 성경 본문에 관한 이해와 해석이다. 셋째는 동일한 성경 본문에 대한 성서신학적 주석 작업이다. 첫째와 둘째 작업 혹은 둘째와 셋째 작업의 과정들은 함께 이루어질 수도 있고, 순서를 달리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각각에 해당하는 연구의 결과를 통섭적으로 종합하여 분석하고 해석하는 작업을 통해 넷째로, ‘미술’과 ‘성서신학’의 대화를 시도하고, 성경 본문에 재조명하여, 본문을 재해석함으로써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본문 주석의 가능성과 가르침(message)과 통찰력(insight)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이다.

3. 미학적성서해석의 기대와 전망

미학적성서해석의 사례 연구는 렘브란트의 그림 해석을 통한 신학 분야와의 간학문적 대화와 통섭적 학문 활동의 결과물이 될 수 있다. 이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제안하는 일은 학문 분야들

의 통섭적이며, 간학문적 연구 활동의 발전 가능성과 연결하여 무궁무진하게 확대되어 전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연구 방법과 모델은 고호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던 해에 그렸던 〈선한 사마리아인〉(1890)이라는 작품과 그와 관련된 누가복음 10장의 해석을 통해 고호의 작품과 신약성서해석학의 간학문적 연구에 적용될 수 있다. 운보 김기창의 수묵화와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등의 그림과 조각 작품들에서도 그러한 해석학적인 작업들이 적용 가능하다. 이러한 학문적 연구는 미술과 신학의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멘델스존이 1846년에 작곡한 작품 〈엘리아〉와 구약의 열왕기상 17장 이하 본문에 관한 해석과 비교 연구는 음악과 신학의 통섭적 연구로 전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구는 바흐와 헨델과 하이든을 비롯한 많은 음악가들의 작품과 그와 관련된 성경 본문 해석의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화음과 음표의 구성 자체가 마치 언어와 같이 상징적 의미들을 담을 수 있으며, 특별히 작곡과 더불어 성경 본문과 관련된 작사는 구체적으로 성서해석의 결과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활동들은 지금까지 독립적으로 전개되어 왔던 인문학과 예술과 종교 분야의 통섭적 대화를 위한 학문적 연구 발전에 기초를 제공하는 작업으로 연속될 수 있다.

기독교 미술 작품과 그와 연관된 성경 본문의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분석하고, 해석하여, 그 결론을 도출하는 작업을 통하여 미학적 성서해석은 ‘미술’과 ‘신학’이 접목된 새로운 성경 본문 해석의 결과를 제안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예술가들의 시대에 당시의 미술과 신학과 문화가 어떻게 상호적 영향을 끼치며 공존할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한 사회 안에서 문화와 인문학과 종교가 함께 상생하며 발전했던 구체적인 사례와 방법의 모델을 보여주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예

를 제시하는 사례연구는 다음 단계에서 진행되었다.

이 연구 결과물들은 신학교의 환경 속에서 미래의 교회 지도자들로 살아갈 신학생들에게 교육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신학생들의 예술 분야에 대한 접촉과 미학적 주제들에 관한 관심은 한국 기독교의 예술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과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초적인 경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미학적성서해석 사례연구 예시

창세기 32:22-32(MT 32:23-33)과 렘브란트의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에 관한 미학적-성서적 접근: 성화와 성경본문에 관한 미학적성서해석
(An Aesthetic-Biblical Approach to Genesis 32:22-32 (MT 32:23-33) and Rembrandt's *Jacob Wrestling with the Angel*): Aesthetic-Biblical Interpretation of Sacred Art and the Biblical Text)

1. 들어가는 말

창세기 32장 22-32절 본문의 내용은 기독교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야곱의 일화를 담고 있다. 이 본문을 해설했던 여러 설교자와 해석자들은 야곱의 신앙적 열정과 불굴의 투지와 열심에 초점을 맞추어 본문을 주석했던 전통을 지켜온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이 본문을 가지고 어거스틴(Augustinus)은 주님과 겨루어 이겼고, 끝까지 용감하게 견뎌 냈던 야곱처럼 성도들이 축복받을 자격을 갖기 위해 받은 것을 굳게 지켜야 한다고 설교했고¹⁶, 칼뱅(John Calvin)

* 본 논문은 2025년 장로회신학대학교(학술연구지원처)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결과임. 이 논문은 제129차 한국구약학회 추계학술대회(2025.9.26)에서 발표 자료로 소개되었음.

16 Mark Sheridan (ed.), *Ancient Christian Commentary on Scripture, Old Testament II, Genesis 12-50*, 이해정 옮김, 「교부들의 성경 주해: 구약성경 II, 창세기 12-50장」 (칠곡: 분도출판사, 2014), 243-246 - Augustinus, 「설교집」 5.7. (WSA 3.1, 222-223) 재인용. 356-

은 이 사건을 야곱의 기도와 환상으로 보았으며, 앞으로의 투쟁을 위한 하나님의 엄한 연단 과정으로 해석하였다.¹⁷ 폰 라트(G. von Rad)는 “맹렬함”과 “목숨을 건 용기”로 투쟁한 야곱이 마침내 밤의 공격자로부터 축복을 얻어냈다는 내용의 야곱 설화인 이 본문이 J기자가 전승했던 고대 민담의 원인론적 이야기와 결합되어 있으며, 야곱의 투쟁이 단순한 전기적 사건이 아니라, 야곱과 동일시된 이스라엘 백성의 전역사가 연결되어 있는 확대 해석 가능한 민담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¹⁸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읽고, 분석하며, 안으로 들어갈수록 당면하게 되는 주석적인 문제들이 있었고, 그 공통된 문제의 특징은 해석상의 ‘모호함’이었다. 우선, 야곱이 누구와 씨름했는가 라는 질문에 선뜻 답하기가 쉽지 않다. ‘어떤 사람’이 처음 언급되지만, 마지막에 야곱의 고백은 ‘하나님’이다. 그러나 야곱과 씨름했던 존재는 자신과 씨름하던 야곱에게 말할 때 ‘하나님과 사람들로 더불어 야곱이 겨루어 이겼다’고 표현함으로써 결국 그의 이름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 또 다른 모호함은 누가 이 씨름에서 실제로 이겼는가 라는 질문에 관한 것이다. 본문에는 야곱이 상대방을 쓰러뜨렸다는 이야기가 없고¹⁹, 전개되는 사안들 가운데 대부분의 주도권이 야곱과 씨름해주었던 상대방에게 넘어간 상황을 보게 되면서, ‘야곱이 이겼다’라는 본문의 표현이 있음에도 여전히 이 씨름의 분명한 승자에 관한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는 애매함이 남는다.

357.

17 John Calvin, *Genesis*, 존칼빈 성경주석출판위원회 역, 「창세기」 존칼빈구약성서주석, 1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2), 243-246.

18 Gerhard von Rad, *Das Erste Buch Mose: Genesis*, 한국신학연구소번역실 역, 「창세기」 국제성서주석, 1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1), 361-365.

19 김정우는 이 문제에 관하여 야곱이 진 것이라고 보았다: “야곱은 더 이상 씨름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즉, 야곱이 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김정우, “[창세기 강해] 경계인 야곱의 씨름과 새 이름 창 32:24-32.” 『헤르메네이아 투데이』, 25 (2003), 73-78(74-75).

본문의 뜻과 메시지를 찾기 위한 주석적 연구를 진행하면서 유사한 궁극증을 가지고 살펴보게 되었던 미술 작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렘브란트의 성화였다. 렘브란트의 유화 작품들 가운데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1659-1660)²⁰은 창세기 32장 22-32절(MT 32:23-33)에 기록된 야곱의 씨름 사건의 본문과 내용을 소재로 하고 있다. 기존의 여러 기독교 화가들이 그렸던 동일한 주제의 작품들이 많이 있었지만, 한결 같은 공통점은 온 힘을 다해, 힘써서 상대방에게 덤벼드는 야곱을 묘사했다는 점이었다. 심지어 들라크루와(Eugene Delacroix)는 야곱과 씨름하는 천사가 힘으로 밀리고 있는 듯이 보이는 모습으로 이 장면을 묘사하기도 했다.²¹ 그러나 특이하게도 렘브란트는 더 이상 힘을 쓰고 있지 않고 있는 야곱과 천사를 자신의 성화에 묘사해 놓았다. 본문을 예술가로서 관찰하고, 해석하고, 회화적으로 표현했던 이 예술가는 왜 다른 이들과 다르게 그림을 그렸을까 라는 물음이 있어왔다.

창세기 32장의 본문 주석의 과정에서 다양한 해석학적인 문제와 직면할 수 있고, 주석적인 난제를 풀어 가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렘브란트를 ‘예술가’인 동시에 한 사람의 ‘성경 해석자’로 전제하고, 그가 사용했던 구약 본문을 화가이자 해석자로서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여, 그림으로 표현하였는가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성경본문의 주석적 연구와 연결된 비교와 분석적 연구를 전개함으로써, 미술과 성서신학 분야의 통섭적 대화와 융합적이며 간학

20 렘브란트(Rembrandt Harmenszoon van Rijn, 1606~1669)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Jacob wrestling with Angel) 1659년경, 캔버스에 유화, 137cm×116cm, 베를린 국립회화관

https://ko.wikipedia.org/wiki/%ED%8C%8C%EC%9D%BC:Rembrandt_Jacob_Wrestling_with_the_Angel_-_Google_Art_Project.jpg <https://gongu.copyright.or.kr/gongu/wrt/wrt/view.do?wrtSn=13266530&menuNo=200018>

21 Stefano Zuffi(ed.), *Old Testament Figures in Art* (Los Angeles: The J. Paul Getty Museum, 2003), 125.

문적인 연구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그림의 내용과 요소들에 대한 미술분야의 <도상학적해석> 방법을 활용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렘브란트의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이라는 성화에 나타난 성경본문 해석의 특징을 파악하고, 동시에 이 예술작품의 근거와 배경이 되었던 창세기 32장 22-32절 본문 연구를 위해서는 최종본문 상의 문학적인 특징들과 미학적인 내용들을 분석하고, 본문의 성서신학적 의미 해석을 시도할 수 있는 수사비평적인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주석적 연구를 진행하였다.²²

본 연구는 창세기 32장의 구약본문과 그 본문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던 예술작품이 과연 어떤 상관관계 속에서 해석될 수 있는가를 고찰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성서신학적 주석방법론을 적용한 해당 본문 연구의 결과와 도상학적 해석을 통한 성화의 성경적 내용과 의미를 비교하여 고찰함으로써, 성화와 성경본문을 새롭게 조망하고, 재해석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본문의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찾아가게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성경본문과 성화에 관한 ‘미학적이며, 성서학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미학적성서해석’이라는 주석방법론을 제안하는 일련의 연속적인 논문 작업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²³

-
- 22 여기서 말하는 ‘수사비평적인 연구’는 엄밀한 의미의 수사비평 보다는 최종본문상에서 문학적 장치와 구조 등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미학적 요소를 파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수사비평적 성격의 연구가 방법론적으로 활용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도 최종본문을 강조하는 공시적인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창세기 연구의 통시적 연구와 최근의 공시적 연구 동향에 관하여는 다음의 논문을 확인할 수 있다; 윤형, “창세기에 대한 연구 성과와 과제”, 『구약논단』 통권80집, vol. 27-2 (2021, 6), 101-129.
- 23 김진명, “〈그리스도의 세례〉에 관한 미학적 성경주석: 운보 김기창의 〈요한에게 세례받음〉과 배경 본문(마 3:13-17, 례 8:6, 12)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통권 80집, vol. 27-2 (2021, 6), 169-196.

2. 창세기 32:22-32(MT 32:23-33) 본문연구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떠났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형 에서를 다시 만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정의 이야기가 기록된 창세기 32장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32:1-2 마하나임: 야곱이 천사를 만남, 32:3-2 야곱이 에서에게 사람을 보냄, 32:13-21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감, 32:22-32 브니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함).²⁴ 이 가운데 마지막 단락인 야곱의 씨름 이야기 본문에서 많은 설교가들과 주석가들은 야곱의 신앙적 열정과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너무도 당연스러운 본문의 교훈을 해설해 왔다.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직면하게 되는 본문 자체의 모호함은 이 본문이 결코 손쉽게 설명될 수 없는 난해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어려운 본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1) 첫번째 모호함: 야곱은 누구와 씨름했는가?

창 32:24(MT 25)

그러고서 야곱은 홀로 남았고,(바이바테르 야아콥 르바도)

어떤 사람이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했다(바에아베크 이쉬 임모).(새한 글성경)

창 32:30(MT 31)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프니엘)이라고 불렀다. 그러면서 중얼거렸다.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파님 엘-파님), 하나님을 뵈었구나(키-라이티 엘로힘). 그리고도 목숨을 건졌구나.”(새한글성경)

24 천사무엘, 「창세기」, 대한기독교서회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1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414.

창세기 32장 24절에서 “어떤 사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정관사 없이 기록된 <이쉬>라는 명사이다. 야곱의 압복강가 씨름 사건에서 그와 씨름했던 인물의 정체는 이야기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30절에서 밝혀주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처음에는 본문을 읽는 독자가 야곱과 씨름했던 인물이 누구인가를 알 수 없도록 “어떤 사람”으로 언급되었다. 그러나 그 정체불명의 이 인물은 결론부에 이르면서 29절의 마지막 문장에서는 “하나님”(<엘로힘>)으로 밝혀지는 수사적인 문장 구성을 보여주었다. 중간에 “그러면서 중얼거렸다”는 문장은 히브리어 본문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새한글성경’의 의역에 해당하는 추가 번역 부분으로 볼 수 있으며, 번역자는 30절을 야곱의 독백으로 부각시켜 번역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야곱과 씨름했던 상대방의 정체를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을 28절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창 32 : 28(MT 29)

그가 말했다. “그대 이름을 두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시오. 그대가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임-엘로힘 베임-아나섬)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요.”(새한글성경)

본문 전체는 3인칭 남성 단수 주어 ‘그’가 25-29절까지 각 절에서 사용되다가, 대화체의 직접화법으로 이루어진 28절에서 야곱을 2인칭 남성 단수로 언급하는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다. 28절에서는 “그”로 지칭되던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부여하면서, 야곱이 <엘로힘>과 <아나섬>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을 통하여 야곱과 씨름했던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으로 표현되었다는 점에 주목해 볼 수 있다. <새한글성경>에서는 <아나섬>을 “사람들”로 문자적 번역을 했으나, <개역개정역>에서는 “사람”으

로 번역했던 차이를 보여준다. 하지만, 28절의 <임-엘로힘 베임-아나습>에 나타난 이 표현을 히브리어 복수형 용법들 가운데 “존엄의 복수”(pluralis maiestatis)로 본다면, 야곱과 씨름했던 어떤 사람이 스스로를 가리켜 ‘하나님’과 동시에 ‘사람’이라는 특별한 호칭을 사용하여 표현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또한 “어떤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부각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엘로힘>이 복수형 단수 명사인 것처럼, 그에 상응하는 수사적 표현으로서 그 존재를 지칭하는 용어 <아나습>을 함께 복수형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새한글성경>에서 “사람들”이라는 남성, 복수형 명사로 문자적 번역을 시도한 것과 비교해서 <개역개정역>의 남성, 단수 명사인 “사람”이라는 번역도 유의미한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신비한 인물에 관한 모호성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왜냐하면 야곱이 씨름했던 상대방이 이 씨름의 의미를 <엘로힘>과 <아나습>으로 겨루어 이겼다고 함께 언급했던 문제 자체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때문이다. 본문의 내용을 야곱과 씨름했던 인물이 누구인가 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해 보면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다:

32:24 어떤 사람 <이쉬>

32:28 하나님 <엘로힘> - 사람들<아나습>

32:30 하나님 <엘로힘>

사르나(Nahum, M. Sarna)는 창세기 32장 23-33절(MT)의 본문 이야기가 압복강이라는 장소와 관련하여, 사람이 강을 건너는 것을 방해하는 ‘강의 정령들’이나 ‘강의 신’ 또는 강의 의인화 등의 다양한 반복적 주제들이 성경 문학으로 전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변환을 분석함으로

씨 이야기의 모호함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본문에서 언급되었던 어떤 “사람”은 ‘브니엘’이라는 지명에 관한 설명(32:31)에서 볼 수 있듯이, ‘신적인 존재’로 야곱이 인식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야곱의 씨를 이야기 전승에 관하여 언급했던 호세아 선지자는 야곱의 상대방을 ‘하나님’(엘로힘)으로 언급하고, 이어서 ‘천사’(말르아크, 호 12:3-4, MT 12:4-5)라고 기록해 주었다고 설명하였다.²⁵ 그렇다면 야곱과 씨름했던 신비한 인물은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고, 천사일 수도 있으며,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인 존재이고, 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 전체를 대표했던 인물일 수도 있었다.

2) 두번째 모호함: 이 씨름의 승자는 누구인가?

창 32:24(MT 25)

그리고 그가 남았다(술어) + 야곱이(주어) + 그 혼자서(바이바테르 야아콥 르바도)

그리고 그가 씨름했다(술어) + 사람이(주어) + 그와 함께(바예아베크 이쉬 임모).

창세기 32장 24절의 첫 두 문장은 서로 어순도 같고, 평행하는 형태로 상응관계를 이루고 있다. 첫 문장의 주어는 야곱이고, 두번째 문장의 주어는 어떤 사람이다. 야곱의 씨름 이야기로 알려진 이 본문은 24절 둘째 문장부터 주어는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고, 사건의 전개는 야곱으로부터 ‘어떤 사람’에게 주도권이 넘어간 상태로 29절까지 이어진다.

25 Nahum. M. Sarna, *Understanding Genesis* (New York: Schocken Books, 1978), 202-207; 천사무엘은 히브리어 ‘엘로힘’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천사를 포함하는 천상의 존재를 지칭하기 때문에 호세아 12장 4절에서 “천사”로 이해한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천사무엘, 「창세기」, 419.

25(MT 26) 그가 야곱의 엉덩이뼈를 찢고(바익가으)

28(MT 29) 그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것을 말했고(바요메르)

29(MT 30) 그가 야곱을 축복했다(바에바레크)

야곱이 이 씨름에서 이겼다고 볼 수 있는 표현은 25절에서 ‘그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았다’는 문장과 26절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다’는 말과 28절의 “그대 이름을 더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시오. 그대가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오.”(새한글성경)라는 문장에 근거한다.²⁶ 그런데 야곱에게 “네가 이겼다”(바투칼, 28)라고 인정을 해주었던 인물은 야곱이 씨름하던 상대방이었다. 야곱이 한 일은 오히려 ‘축복’을 간절히 간청했던 일이었다. 베스터만(Claus Westermann)은 이러한 점들을 지적하며, 이 씨름에서 사람을 압도하던 신적인 힘은 ‘축복’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축복은 전적으로 씨름하던 상대방에게 속한 것이었기에, 씨름은 야곱이 승자라고 결론지을 수 없는 상태로 남아 있다고 보았다.²⁷ 구약 본문 자체의 전승 가운데 이 이야기와 연관된 호세아 12장 3-4절에서도 ‘씨름하다’와 ‘이겼다’라는 창세기 32장의 동사를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천사”에게 야곱이 울면서 간구했다고 표현해주었다.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의 새이름을 설명하는 28절의 ‘싸우다’ 혹은 ‘씨름하다’와 ‘겨루다’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히브리어 동사 <사라>²⁸와 관련된 문장의 다른 해석 가능성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엘>로 끝나

26 Tremper Longman III & David E. Gerland (ed.), *Genesis-Leviticus*, Expositor's Bible Commentary, vol. (Grand Rapid: Zondervan, 2008), 125.

27 Claus Westermann, *Genesis 12-36*, Tr. by John J. Scullion S. J., *Genesis 12-36*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1), 517-518.

28 Ludwig Koehler and Walter Baumgartner,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Lexikon*, tr. by M. E. J. Richardson,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Leiden, Boston, Köln: Brill, 2001), 1354.

는 구약의 이름들은 신명이 주어의 의미를 가지며, 목적어로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서 문자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혹은 ‘하나님이 겨루신다’ 등의 의미였을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²⁹ ‘이겼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 <야콜>과 관련해서도, 28절 마지막 부분을 “...하나님(혹은 신들)과 네가 겨루었지만, 실제로는 네가 사람들에게 이겼던 것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가능성과 “~ 사람들과”라는 부분의 생략이 제안되기도 했다.³⁰

최종적으로 야곱이 이겼다고 보기에는 모호한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야곱의 상대방이 야곱과 씨름을 해주었고, 야곱이 축복을 강청했던 이도 야곱의 상대방이었으며, 야곱이 이겼다고 인정해준 이도 그의 상대방이었으며, 이스라엘이라는 새이름을 그에게 주었던 이도 야곱의 씨름 상대가 되어 주었던 그 상대방의 존재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씨름에서 모든 주도권은 ‘어떤 사람’으로 나타났던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인정해 주셨을 때에만, 비로소 모든 것이 의미를 갖게 되었던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물리적인 힘겨루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나님은 이 씨름의 주권자였으며, 다만 야곱에게 “네가 이겼다”라고 인정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겼다는 28절의 해설은 문자적이며 물리적인 표현 그대로의 의미를 갖기 어려운 기록 형태이며, 전체적인 내용은 실

29 Robert Alter, *Genesis* (New York, London: W. W. Norton & Company, 1996), 182 참조.

30 J. A. Soggin, “יָכַל”,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VI, (Grand Rapids, Cambridge: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0), 71-75 (75).

제로 이 씨름의 승자가 누구인가 라는 물음의 답이 모호함 속에서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다.

3) 본문의 ‘모호성’이 갖는 수사적 의미와 역할

레이보비츠(Nehhama Leibowitz)는 야곱의 씨름 사건이 기록된 창세기 32장의 본문을 인위적 합리화를 통한 해석이 어려운 비합리적이며,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이야기로서 토라의 가장 난해한 본문들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현실의 물리적 감각 세계에서 외적으로 일어난 사건(Rambam)이나 예언적 환상처럼 꿈을 통하여 야곱이 영적으로 경험했던 사건(Ramban)으로 보는 유대교의 해석 전통과 함께 야곱의 씨름 상대자를 야곱의 사다리 환상 가운데 나타났던 천사들 가운데 하나인 ‘에서의 군주’(prince of Esau)로 보고, 에돔 민족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암시하는 의미를 갖는 본문으로 해석했던 미드라쉬적인 해석(Krochmal, *Moreh Nevukhei Hazeman*) 전통도 함께 소개하였다.³¹ 유대교 진영의 이러한 해석은 야곱과 상대방의 씨름을 그 당시 현장의 역사적 상황이 아니라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관련된 중의적인 의미의 기록이라고 보았다는 점이 흥미롭다. 하지만 본문과 이 본문이 속한 문맥의 흐름과는 동떨어진 해석의 형태라고 평가해 볼 수 있다. 야곱과 씨름했던 상대방의 정체에 관한 창세기 32장 본문 자체의 모호함은 야곱이 이름을 물을 때 그 이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신적인 존재의 대답에 기인한다(27).

또한 이 씨름의 승자에 대한 물음도 여전히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 안에 놓여 있다. 이러한 모호함의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과 존재가 사

31 Nehhama Leibowitz, *Studies in Bereshit(Genesis)*, (Jerusalem, World Zionist Organization, 1981), 366-367.

람의 인식과 경험으로 모두 다 파악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구약 성경 자체의 전통과 수사적 표현의 전통일 수 있으며, 이러한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전달하고 있는 가르침은 완전한 인식이나, 완벽한 설명이 불가능한 초월적인 존재가 스스로를 제한하여 사람의 씨름 상대가 되어 주었다는 사실과 그분을 경험한 야곱이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사실이다.³² 이러한 해석학적 난해함과 모호성을 가지고 있는 창세기 32장 본문의 문제들을 해석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가운데 매우 인상적이며, 독특한 예술적 표현의 결과를 화가 렘브란트의 미술 작품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3. 렘브란트의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에 관한 도상학적 해석

“렘브란트는 분명히 성서 이야기들의 위대한 해석자들(the greatest interpreters)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³³라는 평가는 괴테(J. W. von Goethe)가 그를 가리켜 “사색가”(der denker)³⁴라고 했던 말과 김학철의 “시각적 주석가”라는 렘브란트에 관한 평가³⁵와 다르지 않다. 렘브란트는 육체

32 예를 들어, 출애굽기 3장 2절 이하의 본문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질문하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여호와와 사자”〈말르야키 아도나이〉는 “여호와”〈야훼〉로 언급되었고 (4), 다시 ‘하나님’으로 언급되었다(6). 여기서도 동일한 성격의 모호성을 경험할 수 있다. 한편 조금 다른 성격의 경우이지만 민수기 12장 1절의 모세의 잘못을 지적했던 문장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알기 어려운, 본문상의 모호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성경의 모호성의 주제에 관하여 다음의 책을 참고할 수 있다. David H. Aaron, *Biblical Ambiguities* (Boston, Leiden: Brill Academic Publishers, Inc. 2002), 85-100(88, 93-94).

33 Arthur K Wheelock Jr., Anne T. Woollett, and Peter C. Sutton, *Rembrandt's Apostles* (San Diego: Timken Museum of Art, 2005), 1.

34 “사상가(der denker) 렘브란트”라는 표현은 괴테 (Goethe)가 렘브란트의 작품 〈산한 사마리아인〉(1633)에 관련하여 했던 말로 전해지고 있다. Michael Bockemühl, *Rembrandt* (Köln: TASCHEN, 2007), 13

35 “주석가는 주석을 통해 특정 시대의 문화와 사회 속에서 특정언어를 쓰는 이들에게 성서 본문의 의미를 해명하는 사람들이다. 주석가는 ‘글’이 그들의 작업도구이다. 반면 성서 화가는 성서의 의미를 이미지 제작을 통해 독자들에게 알려주려 한다. 이런 특징을 두고



적이고, 영적인 위기의 순간에 처한 야곱을 묘사했던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1659-1660)이라는 작품에서도 문자적인 언어를 생생하고, 설득력 있게, 회화적 언어로 변형시켜 본문의 모든 의미의 어감(nuance)을 표현하였다.³⁶ 렘브란트의 그림이 독특하게 보이는 이유는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씨름 이야기 본문을 묘사했던 많은 화가들이 야곱의 정열적인

성서화를 '시각적 주석'으로, 성서화가를 '시각적 주석가'로 부를수있다." 김학철, "성서화 비평과 성서화가(聖書畫家): 성서화가 렘브란트와 그의 성서화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3집 (2011. 1), 259-286(270).

36 같은 책, 1

투쟁과 야곱의 승리라는 관점에서 최선을 다하는 야곱의 강렬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했던 데 반해, 그는 야곱이 눈을 감고 있고, 힘도 쓰지 않으며, 천사도 마찬가지로 투쟁과도 같은 격렬한 씨름을 이어갈 의지를 보이지 않는 얼굴과 자세로 표현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렘브란트가 생각했던 아름다움의 관심과 생각이 당대의 다른 화가들과 달랐기 때문이었을 수 있다.³⁷

창세기 32장 22-32절 본문의 내용과 의미와 가르침을 예술가의 시각을 가지고 매우 독자적으로 해석했던 화가 렘브란트의 작품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렘브란트의 성경 본문 해석과 시각화한 표현의 다양한 특징들을 미술분야의 ‘도상학’을 적용한 그림 해석 방법을 활용하여 살펴보고, 창세기 32장의 본문의 문자와 내용이 어떻게 시각화되고, 예술적으로 표현되었으며, 그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미학적 특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해석해보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1) 야곱의 씨름: 사람의 현실 읽기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의 얼굴은 천사의 흰색 옷을 배경으로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천사의 왼팔과 가슴 사이를 지나서 천사의 등쪽을 향하여 올라간 야곱의 오른팔은 그림 우측에 살짝 묘사된 야곱의 겂옷 소매의 붉은 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의



37 17세기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도 당대의 다른 이들과처럼 카라바조의 영향을 받았고, 명암의 기법을 사용한 특징을 이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렘브란트의 자유로움과 진실성을 강조하는 특징은 때로 이탈리아 미술의 아름다운 인물상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곤 했다는 평가도 있다. Ernst Hans Josef Gombrich, *The Story of Art*, 백승길, 이종승 옮김. 「서양미술사」(서울: 예경, 2019), 427.

묘사는 야곱이 방금 전까지도 여전히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던 상황이었음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눈을 감고 있는 야곱의 표정은 특이하다. 눈을 감고 있는 이 얼굴을 무엇인가 명상하고 있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하나님을 본 자(visio Dei)의 표정”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³⁸ 왜냐하면 치열한 씨름 중에 명상의 순간을 가졌다는 연결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창세기 32장 30절의 기록에 따르면, 야곱은 상대방에게 축복을 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난 후에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하나님을 뵈었구나, 그러고도 목숨을 건졌구나!”라고 말했다는 설명이 있다.

마지막에는 야곱이 하나님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가 씨름하는 도중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으로 인식했는지 아니면 모든 일이 다 끝난 후에 비로서 깨닫게 된 것인지의 문제도 본문에서는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최소한 화가가 보았던 창세기 32장 본문상에서 야곱의 이 표정과 눈을 감고 있는 얼굴 모습과 쓰러지듯이 몸의 무게 중심이 뒤로 기울어지고 있는 전체적인 모습과 연결될 수 있는 구절은 32장 24-25절이다.

“그러고서 야곱은 홀로 남았고, 어떤 사람이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했다.

자신이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야곱의 엉덩이뼈를 찼다.

그래서 야곱은 그와 씨름하다가 엉덩이 뼈를 빼었다.”

뼈가 어긋나버린 그림 속 야곱은 움직임을 멈추었고, 굳건하게 버

38 오일환, 김상래, “렘브란트의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에 대한 감상과 재해석”, 「신학과 학문」 제22권 3호 (2020년 12월), 67-9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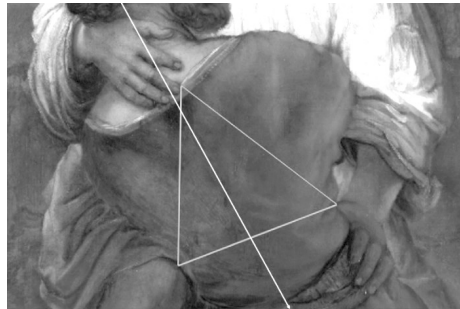
티며 힘을 쏟아야 하는 씨름 상황에서 몸은 균형이 무너진 상태가 되었으며, 부릅뜨고 있어야 하는 두 눈은 감겨져 있다.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씨름하던 “어떤 사람”이라는 낱말을 렘브란트는 ‘천사’로 해석하여 표현하였으며, 날개를 넓게 펼친 천사는 야곱이 쓰러지지



않도록 받쳐주고, 야곱을 붙들어 잡아주고 있는 자세와 모습으로 그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의 좌측 하단에는 천사가 자신의 오른발을 올려서 바위를 밟고 지탱하면서, 자신의 다리를 야곱의 허리 위쪽 부분을 받칠 수 있도록 했던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렇다면 천사의 오른쪽 다리는 이 그림의 장면 안에서 야곱을 공격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이 쓰러지지 않도록 떠받치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야곱의 목덜미 부분에 놓여있는 천사의 오른손도 마찬가지로 공격하는 형태의 손 모양이 아니라, 넓게 펼쳐서 감싸 안는 형태로 그려져 있다. 이미

기울어진 야곱의 몸이 쓰러지지 않도록 받쳐주고 있는 형태이다.³⁹ 천사의 왼손은 야곱의 허리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누르는 것처럼 놓여 있지만, 힘을 잔뜩 주어



39 그림을 확대하여 보면 야곱의 목덜미 부분의 피부와 천사의 손가락이 맞닿은 부분에서 눌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야곱의 몸은 뒤로 기울어지고 있음을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했던 화가의 세밀한 묘사로 보인다.

서 움켜쥐고 있는 형태가 아니라, 천사의 오른손과 왼손과 오른쪽 다리의 각도와 형태와 전체적인 자세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몸의 무게 중심이 기울어져버린 야곱을 천사가 지탱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그린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렘브란트가 그려준 창세기 32장의 씨름 이야기는 ‘야곱의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름’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주도권도 하나님께 있었으며, 하나님이 저 주시고, 야곱에게 이겼다고 인정해 주셨으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도 부여해 주셨던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이 주권자였던 씨름이라는 사실을 성경본문에서 확인하고, 이렇게 수동적인 모습의 야곱을 묘사했던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화가는 눈을 감고, 더 이상은 과도하게 힘을 쓰거나, 용을 쓰지 못하고 있는 야곱의 얼굴과 뒤로 기울어진 자세의 전체 모습을 통하여, 이 사건이 환상이든, 혹은 기도이든, 혹은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현실 속 사건이든, 아니면 묵상이나, 기절의 순간이든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이 야곱의 열심과 야곱의 투쟁과 야곱의 주도 하에 전개되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움직이시고, 말씀하셨고, 의미를 부여하셨던 ‘하나님의 사건’이었음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다는 해석을 해 볼 수 있다.

2) 천사의 씨름: 하나님의 마음 읽기

그림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씨름하고 있었다고 창세기 32장 본문에 묘사된 야곱과 천사의 자세와 얼굴 표정이다. 서성록은 두 사람의 자세가 싸움이 아니라 서로 겨안는 모습이며, 날개를 넓게 펼친 천사의 얼굴은 “친상의 온유함”을 띄면서 야곱을 감싸고 있다고 평가했다.⁴⁰ 하지만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렘브란트가 묘사했던 천사의

40 서성록, 「렘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7), 82-84.

얼굴에서 눈가에 묘사된 세밀한 표현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천사는 씩씩하면서 손을 놓치 않으려 했던 야곱의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다. 화가는 이 그림에서 천사의 얼굴에 빛을 비추면서, 그림의 관람자들이 천사의 얼굴과 표정과 글썽거리는 ‘눈물 맺힌 눈’



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 천사의 눈과는 대조적으로 ‘야곱의 감은 눈’은 이 그림에서 오로지 ‘천사의 눈’ 만을 이 작품의 관람자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수사적 효과’를 더해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대화가 오갈 수 없는 순간을 묘사한 렘브란트의 작품은 야곱과 씩씩의 상대자가 서로 대화하는 내용의 26-32절 본문과 이 단락의 시작과 그 당시 압박감을 가족들이 먼저 건너는 상황을 설명해주었던 22-23절의 본문보다는 24-25절의 씩씩과 부상에 관하여 기술한 내용이 그림 속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던 부분들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그의 얼굴은 무감각하고, 냉담한 제3자의 관망하는 눈길이나, 공감할 수 없는 대상을 바라보는 관조자의 얼굴이 아니라, ‘눈물을 글썽이는 눈’으로, 애뜻하고, 측은한 마음을 담아 야곱을 바라보고 있는 표정과 눈길로 묘사하였다.⁴¹ 렘브란트는 창세기 32장 30절에서 비로소 “하나님”으로 밝혀진 “어떤 사람”을 자신의 작품에서는 큰 날개를 펼치고 있는 ‘천사’로 해석하여 표현하였다.

41 Ann Jensen Adams, "Introduction: Perspectives on Rembrandt and his works," Ann Jensen Adams (ed.), *Rembrandt's Bathsheba Reading King David's Lett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1-3 참조; Madeleine & Rowland Mainston, *The Seventeenth Centu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26-32 참조.

화가는 성경 본문에서 “어떤 사람”으로 24절에 처음 언급되었던 야곱의 씨름 상대가 30절에 가서 본문의 사건이 마무리될 즈음에 야곱의 중얼거림 가운데 “하나님”으로 밝혀지게 되는 두 본문 사이의 내용을 그림으로 묘사하면서, 예술가로서 미학적인 상상력을 발휘하였으며, 절박한 야곱을 찾아와서 기꺼이 그의 씨름 상대가 되어준 이 특별하고 신비한 존재를 ‘천사’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램브란트는 이 천사를 그리면서, 특별히 ‘눈물이 고여 있는 눈’을 가진 천사의 얼굴로 32장 22-32절 본문 전체의 맥락과 어감과 느낌을 묘사하였다. 천사의 눈물 어린 눈동자와 여러 감정이 교차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천사의 연민 가득한 표정은 많은 해석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창세기 32장 29절에서 상대방의 이름을 물었던 야곱은 누군가와 씨름을 하면서도, 그가 누가인지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상대방을 이기기 위하여 애썼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구약 본문은 이야기해 주었다. 그런데 야곱은 그림 속에서도 눈을 감고 있기에 상대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로 그려져 있다. 다만 천사의 등 뒤로 올라간 손의 흔적은, 본문의 묘사에 따르면, 상대방을 붙잡고 끝까지 놓아주지 않고 있었던 상태였을 것으로, 상상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야곱과 씨름하던 ‘어떤 사람’은 야곱의 엉덩이 뼈를 찼다. 그의 고통과 아픔을 측은히 여기며,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쟁취하기 위해 사람뿐

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씨름하듯이 발버둥치면서 살아왔던 야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렘브란트는 눈감은 야곱을 품에 안고, 쓰러지지 않도록 받쳐주면서, 바라보는 천사의 눈길로 묘사하였다.

처음부터 이 씨름은 사람인 야곱이 이길 수 없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승부였다. 엉덩이 뼈가 빠졌다면 더 이상 그 고통과 통증으로 인하여 공정한 싸움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과 상대하시며, 야곱과 대화를 이어갔다고 32장 26절 이하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다. 무엇인가를 쟁취하기 위해 끝없는 쟁투와 같은 삶을 살아왔던 야곱을 하나님은 치셨으나, 여전히 그를 측은히 여기시고, 붙잡히 여기셨으며,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가장 빈궁한 마음으로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무엇인가를 붙잡고, 씨름하며, 축복을 간구했던 야곱을 바라보며, 이 씨름마저도 ‘그의 싸움’이 아니고, 실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려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렘브란트는 그의 그림 속 천사의 눈망울을 통해서 엿볼 수 있도록 표현해 준 것으로 보인다.

4. 창세기 32:22-32 본문과 렘브란트의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에 대한 미학적-성서적 접근

1) 미학적-성서적 접근

창세기 32장 22-32절 본문은 야곱과 씨름했던 이가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었다고 언급해주었고, 본문의 문자적 기록은 야곱이 ‘이겼다’라고 표현해주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단순한 해석으로 본문의 의미와 교훈을 발견하기 어려운 난해한 구절들이 있고, 이러한 요소들은 야곱이 씨름했던 상대방의 정체와 승자가 누구

www.kci.go.kr

인가 라는 문제를 여전히 모호함의 영역 안에 붙잡아 놓는 특징을 보여 준다. 최종본문상의 이러한 특징은 하나님의 정체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던 구약성경 내의 문학적이며 수사적인 기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앞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이 본문에 관하여 주로 야곱의 열정과 노력과 분투함의 메시지를 교훈하고,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주석이 이루어져왔던 해석적인 전통과 달리 예술가로서 렘브란트는 야곱의 씨름 상대자였던 모호하고, 신비한 존재를 ‘천사’로 묘사하였다. 화가는 야곱의 씨름 상대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그림을 그렸고, 미학적 상상력의 결정적 표현을 천사의 ‘눈물’과 눈물이 곧 흘러내릴 듯이 글썽이는 눈길에 담아 내었다. 창세기 32장 본문의 독자가 다시 이 그림의 관람자가 되었을 때, 그는 눈감은 야곱의 얼굴을 보고, 동시에 눈물 고인 눈으로 야곱을 바라보는 천사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야곱의 열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게 된다.

2) 본문의 재조명과 재해석

씨름의 승자가 누구인가 하는 물음은 더 이상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 씨름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사건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림 속 두 인물의 얼굴과 표정을 보면서, 렘브란트는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심리만이 아니라 그림 속 천사의 눈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리와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표현하고자 시도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떤 내면의 심리적 감정을 품고, 야곱을 어떻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라는 물음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화가가 표현했던 천사의 눈물 어린 눈을 바라보며, 이 작품의 가장 독특하고 미학적인 요소로서, 섬세하고, 아름다운 ‘눈물’의 의미를 해석해 볼

www.kci.go.kr

수 있다.

렘브란트의 성화는 창세기 32장 22절 이하의 본문에 담겨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애처롭게 야곱의 얼굴을 내려다보는 천사의 ‘눈물’에 비취지도록 표현하였다. 한밤중에 의지하고 기댈 곳 없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도망갈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도 마련하지 못한 채로 대책 없이 홀로 있던 야곱을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밤새도록 야곱의 씨름 상대가 되어 주셨으며, 자신에게 목숨을 걸고 매달리는 야곱에게 얼마든지 저줄 준비를 하고 계신 그분의 마음을 해석하고 시각화했다. 화가는 그 옛날 아버지의 축복을 갈구했으나, 또다시 자신이 붙잡고 씨름했던 이에게 축복을 간청하던 야곱을 직접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천사의 ‘눈물’ 고인 눈을 통해서 투영해 주었다.

날이 밝을 때까지 자신에게 매달려 붙잡고 씨름했지만, 엉덩이뼈가 어긋나면서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몸 상태에 이르렀을 야곱을 향해 ‘네가 이겼다’고 인정해 주시고, 끝까지 붙잡고 있던 손을 뿌리쳐 외면하지 않고, 축복을 요청하는 야곱에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천사의 눈물과 그 눈을 통해 느끼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었던 렘브란트의 그림을 통해 창세기 32장 22-32절을 주석적으로 연구하는 해석자는 ‘야곱’의 열정과 열심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본문에 접근할 수 있다. 구약 성경의 본문과 그 의미를 해석하는 작업과 본문의 내용과 합리적 논리와 사건의 역사적이며 객관적인 사실을 찾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었던 주석적 연구 작업은 이러한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살펴보고, 그 안에서 본문에 내포된 심미적이고, 심리적이며, 정서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해석해 가는 미학적 관점의 해석을 병행해 갈 수 있다.

5. 나가는 말

창세기 32장 본문에 대한 성서적 접근으로서 주석적 연구와 램브란트의 성화 작품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에 관한 도상학적 접근을 결합한 통섭적 연구를 수행하면서 고찰하게 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이 작품을 통하여 우리는 구약성경 본문을 보면서, 문자 너머에 기록된 본문의 뜻을 해석하는 일과 더불어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헤아리면서 사건을 바라보고, 사람을 이해하며 본문을 해석하는 일이 중요함을 재확인해볼 수 있다. 문자화된 해설은 하나님과 사람의 감정과 심리를 생생하게 전부 담아내기 어려울 수 있으며, 그 순간의 느낌을 전달하는 데도 한계를 가질 수 있다. 그렇지만 본문의 내용을 시각화한 회화적 표현은 본문의 내용과 더불어 말의 미묘한 어감과 감정과 감성의 부분까지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은 성화와 같은 예술 작품의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주어진 본문과 그 본문을 미학적으로 변형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성화가 있다면, 본문과 성화를 함께 보면서 본문을 주석하고, 양자의 의미를 살펴본 결과를 반영하여 성경의 내용을 재조명하고, 재해석하여 전달하는 일은 성경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풍요롭고 생동감 넘치는,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길을 모색해 가는 일이 될 것이다. 성경 본문과 성화에 관한 미학적이며, 성서적 접근으로서 ‘미학적성서해석’의 시도와 노력은 단순히 미술과 회화 분야만이 아니라 조각과 교회 음악과 기독교 문학과 기독교적인 영화와 영상 매체의 분야에도 접목하여, 함께 연구하고, 협력하는 방안들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들을 성서신학 분야에서 함께 모색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도들이 보다 더 다양하고, 풍성한 성경 본문의 해석학적 연구 결과로 나타나고, 그 결실이 교회 현장과 학계에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한다.

참고문헌

- 김정우, “[창세기 강해] 경계인 아곱의 씨름과 새 이름 창 32:24-32.” 『헤르메네이아 투데이』, 25 (2003), 73-78.
- 김진명, “〈그리스도의 세례〉에 관한 미학적 성경주석: 온보 김기창의 〈요한에게 세례받음〉과 배경 본문(마 3:13-17, 레 8:6, 12)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통권 80집, vol. 27-2 (2021, 6), 169-196. 김학철, “성서화 비평과 성서화가 (聖書畫家): 성서화가 렘브란트와 그의 성서화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3집 (2011, 1), 259-286.
- 서성록, 『렘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7.
- 오일환, 김상래, “렘브란트의 〈천사와 씨름하는 아곱〉에 대한 감상과 재해석”, 『신학과 학문』 제22권 3호 (2020년 12월), 67-91.
- 윤형, “창세기에 대한 연구 성과와 과제”, 『구약논단』 통권80집, vol. 27-2 (2021, 6), 101-129.
- 천사무엘, 『창세기』, 대한기독교서회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1,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Aaron, D. H., *Biblical Ambiguities*, Boston, Leiden: Brill Academic Publishers, Inc. 2002.
- Adams, A. J., “Introduction: Perspectives on Rembrandt and his works,” Ann Jensen Adams (ed.), *Rembrandt's Bathsheba Reading King David's Lett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1-3.
- Bockemühl, M., *Rembrandt*, Köln: TASCHEN, 2007.
- Calvin, J., *Genesis*, 존칼빈 성경주석출판위원회 역, 『창세기』 존칼빈구약성서주석, 1,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2.
- Gombrich, E. H. J., *The Story of Art*, 백승길, 이종승 옮김. 『서양미술사』, 서울: 예경, 2019.
- Koehler, L. and Baumgartner, W.,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Lexikon*, tr. by M. E. J. Richardson,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Leiden, Boston, Köln: Brill, 2001), 1354.
- Leibowitz, N., *Studies in Bereshit(Genesis)*, Jerusalem, World Zionist Organization, 1981.
- Longman III, T., & Gerland., D. E., (ed.), *Genesis-Leviticus*, Expositor's Bible Commentary, vol. Grand Rapid: Zondervan, 2008.
- Madeleine & Rowland Mainston, *The Seventeenth Centu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 Sarna, N. M., *Understanding Genesis*, New York: Schocken Books, 1978.
- Sheridan M. (ed.), *Ancient Christian Commentary on Scripture, Old Testament II, Genesis 12-50*, 이혜정 옮김, 「교부들의 성경 주해: 구약성경 II, 창세기 12-50장」, 칠곡: 분도출판사, 2014.
- Soggin, J. A., “Ikoy”,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VI, (Grand Rapids, Cambridge: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0), 71-75
- von Rad, G., *Das Erste Buch Mose: Genesis*, 한국신학연구소번역실 역, 「창세기」 국제성서주석, 1,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1.
- Westermann, C., *Genesis 12-36*, Tr. by John J. Scullion S. J., *Genesis 12-36*,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1.
- Wheelock Jr. A. H., Woollett, A. T., and Sutton, P. C., *Rembrandt's Apostles*, San Diego: Timken Museum of Art, 2005.
- Zuffi S., (ed.), *Old Testament Figures in Art*, Los Angeles: The J. Paul Getty Museum, 2003.

[ABSTRACT]

**An Aesthetic-Biblical Approach to Genesis 32:22-32
(MT 32:23-33) and Rembrandt's *⟨Jacob Wrestling with
the Angel⟩*: Aesthetic-Biblical Interpretation of Sacred
Art and the Biblical Text**

Jin-Myung Kim

Presbyteria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This study explores the interpre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biblical text of Genesis 32 and its visual representation in a work of art. By employing the methodologies of iconographic analysis from Art and the exegetical approach from Biblical theology, the research attempts an “Aesthetic and Biblical approach”(= Aesthetic Biblical interpretation) to both the Bible and its work of Art. Focusing on Genesis 32:22-32 as the final form of the text, the study investigates the literary and rhetorical dimensions of its inherent hermeneutical ambiguity. It then analyzes the aesthetic elements — such as light, face, eyes, and tears — in Rembrandt’s artistic reimagining of the passage. Through this process, the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for biblical scholars and commentators not only to pursue historical accuracy and objective analysis, but also to attend to the emotional and aesthetic dimensions that reflect both the heart of God and the heart of humanity. This research thus reaffirms the value of interpreting Bible through a lens that considers artistic sensibility and emotional depth. Furthermore, it holds broader significance by demonstrating the potential of such interdisciplinary inquiry to enrich

www.kci.go.kr

fields such as biblical theology, Christian music, visual arts, literature, film, and sculpture etc.

key words

Aesthetic Biblical Interpretation, Ambiguity, iconography, Rembrandt, Jacob's wrestling

투고일: 2025년 08월 09일

심사일: 2025년 08월 24일

게재 확정일: 2025년 09월 01일

www.kci.go.kr